



##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테너

매리온 지 롬니

###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퍼터슨

엘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קי키

엘톱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 교문

매리온 디 행스

로버트 디 헤일즈

딘 엘 라슨

리차드 지 스코트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스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도의 빛 9

1978

### 차 례

이상적인 말일성도 가정.....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질 의 응답.....	4
간증의 열쇠, 믿음..... 어넷 파킨슨.....	9
물론일지.....	12
엘리자베트 프랜시스에이츠.....	14
지역 지도자 메시지..... 하근수.....	17
지역소식.....	18
진짜 눈송이를 보았니? ... 울리브 더블류 버트.....	21
미개척지의 소년..... 마저리 에스 캐논.....	25
“복숭아보다는 훌륭한 인간을”...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31
물문경 백성들이 사용한 문자...존 엘 소렌슨.....	34
선임 동반자—나의 아버지..엘루이즈 벨.....	38
극기.....	44

동 권 : 제158호, 제14권 제9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8년 9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델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8년

제9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권권 소유

**이**상적인 말일성도 가정이란 신권의 권능으로 인봉된 부모에 의해 관리되는 가정이며, 성약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인봉되게 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십일조를 바친 나머지 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필수품을 사거나 집세를 냅니다.

모든 가족들은 수입의 십분의 일을 십일조로 바칩니다.

진실한 말일성도 가정은 하루하루를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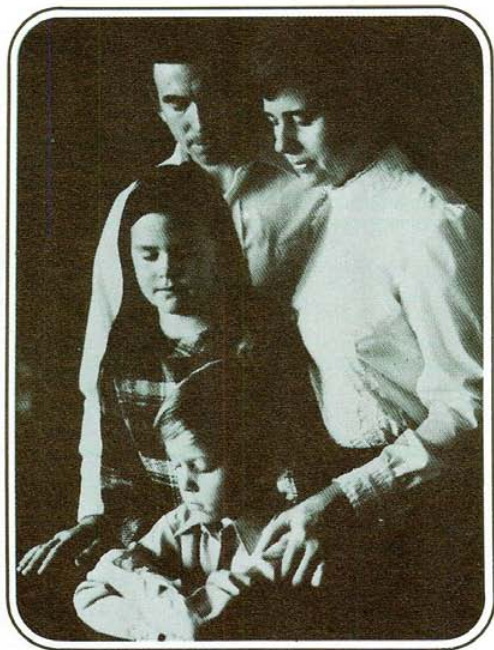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과 모범으로 가르쳐지고 실천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신권이 존중됩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 이상적인 말일성도 가정

매리온 지 룰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다.

진실한 말일성도 가정의 가족들은 서로 충실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지지합니다.

말일성도는 세상의 어떤 결혼과도 다른 결혼관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일성도들에게도 결혼이란 이 세상에서의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말일성도들에게는 결혼이란 영원한 가정의 시작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성신권과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되기 때문에 그들의 결합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또한 그들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실현하는 것이 말일성도의 천국관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장래의 말일성도 신랑 신부에게 순결하고 진실된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심어 줍니다. 그들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다음 말씀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신전 결혼은 가치있는 목표이며, 신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성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그것은 구혼 시절과 약혼 기간에 결정됩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결혼식이 끝난 후가 아니라 구혼 시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순결이란 성공적인 신전 결혼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신전 모임, 1959년 6월 25일)

아직 부부로 인봉되지 않은 남편과 아내는 신전 결혼을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복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합당하게 하십시오. 준비 기간 동안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전에 들어가 인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만약 젊은 형제로 이러한 일들의 참 뜻을 이해한다면, 올바른 결혼을 하기 위해 여기에서 영국으로 기꺼이 여행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의 축복을 원하는 젊은 자매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결혼하기를 원하는 자매도 없을 것입니다.”(설교집, 11:118)

나는 이미 말일성도의 가정은 십일조를 지불한 나머지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정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십일조에 관해서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일조는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예녹과 아담의 시대  
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십일조  
가 말일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십  
일조와 헌금을 주께 바치기를 게을리 한  
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일조와 마찬가지로  
헌금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  
일 우리가 십일조와 헌금을 주께 바치  
기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도  
동한시 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복음의  
영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할 것  
이며 결국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어 우리가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  
게 될 것입니다.”(설교집 15 : 163, 브

리감 영 설교집, 1951년판, 174페이지)

모든 참된 말일성도의 가정은 기도하  
는 가정입니다. 주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으신 후 그들에  
게 주신 최초의 기록인 계명은 그들이  
“주 저의 하나님을 예배”(모세서 5 : 5)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  
지 이 성스러운 계명은 다른 어떤 계명  
보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교회 회원인 가족과 개인은 그  
들이 당하게 될 위협을 무시하고 이 계  
명 지키기를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  
라. 참으로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  
업을 받드는 중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하나님의 왕국, 의로움, 진보, 발전, ...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영원한 증식의 기초는  
성스럽게 제정된 가정에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있도록 하라.”(교성 10 : 5)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저들에게 한 계명을 주노니, 기도해야 할 때에 주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내 백성을 심판하는 자 앞에서 기억되리라.”(교성 68 : 3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왕국, 의로움, 진보, 발전, 영생과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영원한 증식의 기초는 성스럽게 제정된 가정에 있습니다. 만일 가정이 순결과 참된 애정과 의로움과 정의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세워질 수만 있다면, 최고의 존경과 고상한 생각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데 큰 문

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지상에서 그들의 말은 바 사명을 수행하려는 남편과 아내가 가정 없이는 만족하지 않으며, 결코 만족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느낌과 뜻과 욕망은 자연스럽게 가정과 가족과 그들 자신의 왕국의 건설로 향할 것이며, 영원한 증식과 능력, 영광, 승영과 통치, 끝없는 세상의 기초를 놓는 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380페이지)

천국은 단지 이상적인 말일성도의 가정의 연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얼마나 자주 신권의 축복을 요청해야 하나? 병을 앓거나 마음이 평온하지 않거나 불안할 때마다 요청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은 벨기세택 신권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벨기세택 신권 지도자나 감독, 가장(가족을 위하여), 기타 벨기세택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그들이 자청하거나 혹은 부탁을 받고 위안과 권고의 축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축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줄 수 있다.

“가족 중에서 상을 당했거나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려고 하는 경우처럼 시련과 정서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병을 앓고 있을 때는 병자 축복율의 식의 일부로 줄 수 있으며, 다른 경우라면 위로의 축복을 줄 수 있다.

“특별한 신권의 축복없이 문제를 해

결할 경우도 있다. 주님의 영을 간구하는 일 이외에는 달리 정해진 규칙이 없다.”(25페이지)

나는 또한 이 외에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사나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특별한 경우에 조언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엘딘 리스 교수,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과

이 경전 외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는 물론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도 경전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이 질문은 매우 적절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해 토론하기 전에 18절과 19절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이것들 외에 더 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먼저 요한이 “이 책”이라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고 나서 그가

이 책에 무엇을 더하거나 이 책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제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1세기말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을 때, 그는 신약 성서의 마지막 부분을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당시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은 신약 성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닷가에 유배당해 있는 중에 오늘날 터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서방(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한 개의 두루마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27개의 기록 중의 다른 것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27개의 기록이 나중에 명문집 모양으로 출판되었으며 바로 오늘날의 신약 성서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기록은 반드시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7개의 두루마리 기록 중의 몇 가지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주제로 글을 쓴 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서기 4세기까지만 해도 그 당시 나온 성스러운 기록집은 현재 우리가 대하는 오늘날의 신약 성서와 같은 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요한이 “이 책”에 관하여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아직 나오지 않은 신약 성서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록한 두루마리 곧 요한계시록만을 뜻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그의 책을 읽는 사람에게 그의 책에 아무말도 더하지 말고 또한 그의 책의 말씀 중에서 아무 말도 제하지 말라고 명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말은 아무도 그의 두루마리 기록의 본문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어떤 부류의 복사자, 자칭 기만자, 선의이기는 하나 미혹당한 신앙인 등,

아무도 그의 기록을 변경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영감을 받아 적은 그의 기록이 그대로 정확하게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구약 성서의 네번째 책인 신명기의 저자도 이와 비슷하게 독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신 4:2, 신 12:32 참조)라고 말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두 경우에서 저자들은 그들의 성스러운 기록을 읽을 미래의 독자에게 기록된 것 중에 아무것이라도 변경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전이든 결코 더하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없음을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부 사람들은 성경의 나머지 책들이 틀림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경전이 결코 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요한이 말일에 당연히 경전이 더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분명히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경전 즉 기록된 성스러운 계시란 무엇입니까? 요한 계시록 중의 많은 내용은 요한의 시대를 지나서 어느 때인가 지상에 올 하늘 사자들에게 관한 예언입니다. 이 하늘 사자들이 내려오고 방문과 그들의 메시지에 관한 기록이 작성되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경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요한은 종말에 예루살렘에서 예언할 두 예언자의 사명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하고 성스럽게 계시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으로 작성되

면 다시 새로운 경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중요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의 재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 또 새로운 경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에게 결코 경전이 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의 전체를 살펴볼 때 이 작은 책은 말일에 경전이 더 주어질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증명해 주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래리 힐러

어떻게 하면 강한 신앙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특히 “믿음이 없이는(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과 같은 성구를 읽을 때나, 한두 번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

니다.

나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라고 외친 피로움을 당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 큰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의심하고 계심을 내가 아오니, 내가 그것을 견디어 내도록 도와 주소서.”라고 말한 것일 것입니다.

내 생애에서도, 특히 내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온전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간증을 느낀 이후로 왜 더욱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었는가를 스스로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랑과 권능을 믿고는 있으나,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하시는 바이며, 적어도 그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것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 좀더 깊이 생각해 보고 스스로 더 큰 신앙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나는 더 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극히 중요한 몇 가지 주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본 제목에 대해 완전한 대답이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신앙 발전의 중요한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신앙 강화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갖는 실제 지식,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 행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냐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임을 갖게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제6장, 2)

신임이란 말은 내가 신앙이 무엇인가

를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리와 성약 121편에 있는 감명깊은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은 신권을 행사하는 데 따라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리로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 등을 열거하시고,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성 121 : 41~45 참조)

나는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을 갖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얼마나 신임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가 신앙을 갖기에 앞서 완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나, 우리는 분명히 완전하게 되려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열렬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홀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교성 58 : 27)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만 하느니 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 관한 말씀에서, 합당성과 관련해서 요셉 스미스는 희생의 원리를 특히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신앙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의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제6장 : 7)

지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생

명을 바친다는 말을 우리가 모든 소유물을 교회에 바치거나 진리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때로 우리에게 요구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나... 거기에는 반드시 기꺼이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둠으로써 지상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한 단계씩 다른 복음 원리를 익혀 나가는 방법으로 희생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생을 할 때는, 비록 그것이 생명을 바치는 것에 비교할 때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그 결과는 주님의 면전에서 신임이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십일조를 내는 것도 우리가 강한 신앙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고, 우리의 금식 기금이나 교회 헌금을 아낌없이 낸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재정면이나 기타 다른 일로 도움을 청하러 나갈 때 우리가 신임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그러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께서 충고해 주신 대로, 일년치의 식품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한다면, 우리는 앞날에 대하여 덜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 이상의 일을 할 때는 주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한다면, 그는 다른 일에 대하여 좀더 자신있게 주께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욱 의로운 자가 되고 회생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강하게 됩니다. 브르스 알 백롱키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것은 반드시 의로움이 있을 때 주어지며, 하나님의 율법에 더욱 순종하게 되면, 신앙의 엔다우먼트는 더욱 커지게 된다.”(물론 교리, 제2판, 264페이지.)

이제,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고 더욱 강한 신앙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조그만 실수와 약점을 우리에게 기회있는 대로 상기시켜 주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나는 언젠가 교회에서 부름을 받은 뒤에, 내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하여 심히 의심하고 번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별되어 축복해 주신 분에게서 확인을 받고 나자,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의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으므로, 그 확신은 계시와 같이 임했으며, 큰 위안과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신임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이와 비슷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병든 사람을 축복해 주도록 요청받는 신권 소유자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화내어 말하거나, 부당한 생각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즉시 마음속에 떠오를 주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사탄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떠오

른 것이든, 우리가 더욱 의롭게 생활할수록 우리에게 대항해 오는 힘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의 죄를 자유롭게 고백하고 회개의 원리를 활용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결점을 지닌 인간임에도 주께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기를 마음 편히 부탁드릴 수 있게 됩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다른 하나의 함정은 성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순간적으로 효험이 있는 병고침이나 폭풍우를 진정시키는 등에 관한 신앙을 복돋우어 주는 이야기를 읽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가 하고 이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요청에 즉시로 응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끈기있게 주를 받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성 98 : 2 참조) 인내심은 신앙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희생은 포함하여 의로운 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얻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참아야 하고,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는 않으나 지은 죄를 극복하기 위해 참으로 노력한다면, 주께서 자비로 대해 주실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복음의 제일 원리이고(신앙개조 제4조), 또 “열심히 최선의 은사를”(교성 46 : 8) 구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므로, 신앙의 은사는 모든 말일성도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주께서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라시는 은사입니다. \*

# 간증의 열쇠, 믿음

어벃 파킨슨



내가 교회에서 자라는 동안, 나는 개종한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다. 그들은 간증을 너무나도 쉽게 얻는 듯했다. 나는 유태에서 태어나, 훌륭한 물몬 가정에서 자랐으며, 항상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나 많이 들었음에도, 그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알지 못했다. 나는 그 많은 간증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으나, 나 자신은 간증을 얻지 못했으며, 어떻게 하면 간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지조차 못했다. 나는 기도하고, 경전도 읽었다. 나는 우리가 간증을 얻기 위해 통례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들은 것은 모두 다 행했으나 내가 것처럼 많이 들었던 그러한 신앙과 간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없었다.

수년 동안 나는 더 커지게 되면 그러한 간증도 성장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어 가는데도, 간증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드디어 나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브리검 영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간증은 얻지 못했다.

나는 간증 모임에서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 것이 생각났다. 나는 영적인 거인들 틈에서 나 혼자만이 난장이인 듯한 느

낌이 들기 시작했다. 사실 복음에 대한 것을 나보다 잘 알지는 못하나, 그들의 간증은 밝고 열렬했다.

해가 갈수록 간증을 얻어야겠다는 소망은 더욱더 강해졌다. 결국 나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믿고 있는가를 한번 철저히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에게서 응답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해 주는 몇몇 성구가 생각났다. 나는 그 구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인간이 먼저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에도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은 일이 있었으나, 이번만은 이상하게도 이 말에 감동되었다. 그때서야 나는 내게 신앙이 없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신앙의 정의를 찾아보았다. 내가 찾은 것 중에서도 가장 감명깊은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이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나는 이 구절을 거듭 읽어 보고 깊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아직도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미혹당하지나 않는 것인가, 즉 내가 성신을 통해서 진실로 간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간증을 갖는다고 자신을 속이지나 않을까 해서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다.”

결국, 어느 아름다운 봄날 캠퍼스를 거닐며 맑은 하늘과 새로 돌아난 푸른 나무 잎사귀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신앙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말씀을 읽어 보았으나, 그 어느 것도 나의 마음을 꿰뚫지 못했으며,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느낌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만은 한 말씀이 내 마음의 벽을 꿰뚫고 깊이 박혀 버렸다. 내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희미하게나마 알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느꼈다.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배워야 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내게 진리를 보여 주시고, 사탄이나 그 외의 어느 누구도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도록 노력해야 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참되다면 주님은 내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미혹당하지나 않는 것인가, 즉 내가 성신을 통해서 진실로 간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간증을 갖는다고 자신을 속이지나 않을까 해서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다.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한 기만에 빠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붙들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공간으로 몸을 던지는 것과 같이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간증을 얻으려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신앙을 얻는다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러나 나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느끼고 나타내려 성실하게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음의 내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가 침대에 앉아 있었을 때, 내가 전에는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느낌은 아닌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서,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나는 이제 주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다. 진실로 알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말한 생각이 난다.

그 느낌은 깊고, 심오한 것이었으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이기도 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심적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구세주이시며,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이고, 교회의 대관장이 예언자인가를 알아야만 했다. 나는 여전히 여러 가지를 배우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금식하고, 많은 성구와 대회 말씀과 기타 충고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엘마서 32장에서 엘마가 신앙을 좋은 씨앗에 비유한 그 말씀이 나의 생활 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나는 내가 주님을 믿을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 그날 그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참으로 나의 영육을 키워 주기 시작했으며 나의 이해력을 키워 주었다. 처음에는 그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다. 그 이후로 복음에 대한 나의 이해력은 수백 배로 커졌으며, 나는 많은 것에 대한 간증을 얻었다. 그 후로도 나는 나 자신을 키우고 하나님에 대한 더욱 완전한 이해력을 얻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고 지금도 힘쓰고 있다. 그 길은 누구나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를 때 노력한 만큼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 물문 일지

**최** 근에 발행된 선교사에 관하여 특집호를 읽고 나서 나는 이 편지를 써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내가 18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 왔던 생각입니다.

1953년 여름 나는 16세의 나이로 버

지니아주 애빙던에 있는 바터 극장에서 견습 배우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역 배우는 뉴욕에서 여러 사람을 물리치고 (그래서 내가 잘 알았지요.) 주역을 따낸 아름다운 붉은 머리의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준 몬커라고 불리었는데, 그

## 모범을 보인 선교사

앤 레네



것은 단지 그녀의 예명이었습니다. 그녀와 나는 한데 붙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준이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4개월 동안 잠에서 깨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몰몬이라는 소문은 곧 널리 퍼졌으며, 도덕 관념이 전혀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흰 눈과 같이 순결했습니다. 비록 극중에서라도 그녀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그녀의 방에는 남자들이라고는 일췌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스타”였으면서도 매우 다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침에는 언제나 책을 읽었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온 몇 권의 다른 책과 잡지도 읽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종교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으며, 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나도 결혼하고 벌써 두 아이를 두게 되었으나, 남편과 나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관한 강의도 듣고 여러 교회에 나가 보았으나, 역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는 몰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몰몬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몰랐으며, 역사 시간에서조차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펀리카의 작은 엘라베마읍에 있는 공립 도서관에 가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몰몬경” 뒷부분에는 선교 본부가 열거되어 있어, 그중 가장 가까운 선교부, 즉 조지아주에 있는 선교부로 편지를 보내어 개종

자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그후에 일어난 일은 우리 가족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아가씨의 종교 생활 때문에 현재 우리의 양쪽 집안에서 37명이 교회 회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녀에게 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누가 우리를 보고 있으며, 그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점을 배우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앤 파울러 레네

포스, 오클라호마

편집자 주 : 우리는 “행방 불명자”를 찾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지 않으나 렌 자매의 편지로 본 기사에 나오는 몬커 자매를 찾아보게 되었다. 그 결과 그녀가 캘리포니아주 해시엔더 하이츠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준 몬커 웨이트 자매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녀는 그곳에서 엘 몬테 캘리포니아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을 역임했다. “나는 뉴욕에서의 생활과 남가주 대학원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로 연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웨이트 자매는 말했다. “그러나 때때로 와드 연극과 로드쇼를 지도했습니다. 일단 내가 연기 생활에 관여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내가 원하는 생활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내가 바라는 성취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에 내가 남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주었다니 말할 수 없이 기쁘군요. 그렇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니 이상한 일입니다.” \*

# 엘리자베트 프랜시스 에이츠: 고뇌의 시련을 견뎌 낸 여인



**19**05년 3월 12일 엘리자베트 프랜시스 에이츠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주님의 손길이 땅과 바다 위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미치는 것을 보았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했던 시대를 보았습니다... 나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결코 의로운 자가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옛말을 빌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72세였다. 그후 불과 5년 후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오랜 연륜을 지내며 그녀가 얻은 것은 그녀의 순박한 인내심과

신앙심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얻은 것이란 바로 고난을 통하여 순화되고 많은 시련으로 다져진 간증이였다.

데븐셔, 사우드모울턴의 교양있는 성공회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십대의 소녀 시절에 침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자신이 믿고 있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에 의혹을 품게 되었으며 “그후 교회 모임에 참석할 재미가 없었다.” 그녀는 15세 때 윌리엄 윌리엄즈와 결혼하였다. 첫딸이 태어난 후 그녀는 물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 엘리자베트는 흥미를 갖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이 다니던 이전의 교회에 대해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

만 “그래도 그 교회는 그녀가 매우 존중하는 교회였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예의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책자를 출 때 거절하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후에 그녀는 소책자를 읽기 시작했다. 그 후 얼마 안되어 그녀는 존 테일러 장로가 일부 프랑스 성역자들과 벌인 논쟁에 관한 기사를 열중하여 읽었다.

“나는 그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주님을 찬양하라. 드디어 나는 올바른 길을 찾았구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요셉 스미스의 사명에 관하여 설명하는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 “내가 마음속으로 회열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나의 느낌을 단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받는 길 이외의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교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몹시 반대할 것이며, 과거의 친구들이 나에게 냉정하게 대하리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비통의 고뇌가 내포되어 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친절에 발걸음도 들이지 못하게 금지시킨 것이라든가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그녀의 가족과 신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자고 말한 것 등이었다. 그녀는 빈민 속에 흐느끼면서도 자신의 간증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 어린 배 자녀를 버렸다. 엘리자베드는 모직 공장에 취직하여 바구니에 담은 아기를 직조기 옆에 두고 열심히 일하여 자녀들을 모두 겨우 부양하였다. 그녀가 끝내 꺾이지 않는 것을 알고는 남편이 되돌아와서 네 자녀를 모두 런던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의 법률로는 그녀가 남편의 행동을 저지시키거나 자녀들을 되돌려 달라고 할 만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가 주저하던 마지막 순간은 1851년 12월 4

일 한밤중, 침례받기 직전에 그녀가 검은 물빛의 강을 내려다보면서 “도저히 강물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느꼈던” 때였다. “그러나 한 음성이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느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으로 그녀는 그 길을 택하였다. “그후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나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복음의 계획은 너무나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나의 원수가 되어 아무리 어두운 구름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성약했습니다. 그후 나는 유혹을 받아 그렇게 행하는 데 망설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뒤우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이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않았습니다.”

그후 그녀는 토마스 에이츠라는 선교사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바스에서 6년을 보냈다. 그동안 그녀는 적은 수입을 그녀의 자녀를 찾는 데 썼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던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주님은 나에게 시온으로 오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에이츠 가족 그리고 6년 반의 선교사 임기를 마치고 막 귀환한 에이츠씨의 아들 토마스과 함께 시온으로 오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그녀가 영국을 떠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모른다. 그녀는 다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도중에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도록 또는 내가 가는 길에 사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도록 지루하고 먼 여로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평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인내로써 자신의 신앙을 지키 어머니가 말하지 아니한 것들을 말해 준다. 그녀는 항해 도중에 줄곧 계속된 배멀미로 거의 죽을 뻔하였다. 그녀는 토마스와 함께 네브래스카주, 플로렌스에서 1863년 7월 22일 아침에 결혼하고는 그날 오후에 서부로 향하는 달구지 여행을 시작했다. 엘리자베드는 마차에 자기 몸과 자신의 트렁크를 둘 자리가 없음을 알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가장 소중한 물건인, 정성 들여 포장해 놓은 도자기를 가지고 줄곧 걸어갔다. 그녀는 “나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처음으로 성도들의 도시를 보고는 기쁨의 눈물이 펄펄 쏟아졌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자기가 그들 중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으나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러한 인내심과 감사의 정신으로 그녀는 결혼 생활에 깊은 사랑을 갖게 되었다. 본부 상호부조회 제7대 회장이 된 그녀의 딸 루이즈 자매는 어머니가 우시는 것을 단 한 번 보았는데, 교양이 가오두막집의 선반을 부셔서 값진 도자기가 깨뜨려졌을 때뿐이었다고 말한다. 그녀의 남편 토마스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시온 백화점이 유타주에 들여온 해빌랜드 도자기의 첫번째 세트를 주문했다. 그것은 진실로 사랑의 표시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타주 시피오우에서 생계비를 벌기 위해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에서 그녀의 남편은 감독으로 봉사하였고 그녀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 동안 가장 아름다운 추억의 하나는 그녀의 남편이 영구 이민 기금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에코우 캐년에서 철도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녀에게 편지를 보낸 일이다. 우리는 그녀가 남편에게 편지를 통하여 어떠한 걱정거리를 토로했는지 모르나 그녀의 남편이 보낸 편지에는 사랑에 찬 믿음직한 말이 써여 있다. “여보, 당신이 바라는 것만큼 풍족하

게 생활비를 받지 못한다고 전에 불평한 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니 매우 섭섭하오. 여보, 사실은 전연 그렇지 않다는 걸 믿어 주기 바라오. 내가 기억하기로는 불평으로 잘못 생각될 만한 말을 당신이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소... 여보, 보잘 것 없으나 아름다운 나의 집과 내게 소중한 당신과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오. 세상에서 무엇보다 나는 내조를 아끼지 않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신과 함께 하면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어디서든 얻을 수 있다고는 결코 기대하지 않소.”

그러나 그들 부부간의 사랑과 다섯 자녀에 대한 그들의 사랑으로도 그녀의 마음속에 못박힌 고통은 치유될 수 없었다. 그녀의 외동 아들인 토마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녀가 어머니께서 한 밤중에 흐느껴 우시는 소리를 듣고 그 이유를 물어 보니, “수년 전에 영국에 두고 온 어린 딸을 생각하던 중이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자녀들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 헤어질 때 고작 7세였던 수잔은 11세 때 그녀의 물몬 어머니의 행방을 찾으려는 희망을 품고 물몬 가정으로 피신했다. 아기는 벌써 죽었다. 다른 한 딸도 2, 3년 후에 죽고 말았다. 그러나 1870년경에 한 선교사가 수지 윌리엄스를 만나 그녀에게 시피오우에 살고 있는 에이츠 가족에 대해 말해 주었다. 이 사소한 일이 실마리가 되어 모녀가 유타주에서 재회하였다.

수잔은 여동생을 찾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윌리엄스씨는 마지막으로 남은 딸이 결코 그녀의 어머니를 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영국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 공교롭게도 미국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수잔은 신문 광고를 통해 미시간주에서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유타주에서 그들을 만났다. 네 딸은 모두 토마스와 엘리자베드에게 인봉되었다. 엘리자베드는 “나는 의로운 자가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라고 되뇌이고 있는 것 같다.\*



# 진짜 눈송이를 보았니?

올리브 더블류 버트



**눈**이 온다! 눈이 온다!” 어린이들  
 은 혹독한 추위 때문에 두터운 옷  
 을 입고 오두막에서 펄쩍펄쩍 뛰어 나  
 와 아름다운 계곡을 신기한 듯 바라보  
 며 기뻐 소리쳤다. 그 소리는 솔트레이  
 크의 옛 요새를 통해 멀리 퍼져 나갔다.  
 1850년 가을은 더 할 나위 없이 아름다  
 왔다. 협곡의 사시나무는 황금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으나, 오늘은 저 멀리 보  
 라빛 산과 높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요정의 나라처럼 환상적으로 보였다.

주변에 통나무와 오두막집으로 둘러  
 싸인 광장에서 아이들이 뛰놀기 시작했  
 다. 어떤 어린이가 “우리 여우와 거위  
 놀이하자!”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거  
 위의 집을 만들기 위해 눈 위에 선을

그었다.

한 소년이 두 선 사이로 달려가면서 “나는 여우다! 나는 여우다!”하며 소리쳤다. 즐거운 게임이 계속되었다. 고품 소리와 웃음 소리가 차가운 아침 공기를 흔들어 놓았다.

한 큰 소년이 이렇게 소리쳤다. “우리 눈 성을 쌓자!”

그의 친구들은 성을 만들기 위해 눈을 쌓아 올렸다. 공격자들로 정해진 어린이들은 눈으로 대포 탄환을 만들었다.

그들은 체니 교수가 옛 성터에 들어갈 때까지 즐겁고 떠들썩하게 놀았다. 그는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한 어린 소녀가 그의 곁을 지나 뛰어가다가 눈 위에 미끌어져 부드러운 눈 속에 얼어졌다. 교수는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워 모자에 묻은 눈송이를 털어 주었다.

“자, 재미있니?”

“예, 선생님! 너무나 아름다워요!”

교수는 눈을 깜박거렸다. “아름답다고 했지? 그런데 너는 진짜 눈을 보았니?”

“물론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그녀는 마치 솜털같은 눈을 모아 드리려는 듯 팔을 넓게 벌렸다.

체니 교수는 그녀의 한쪽 팔을 잡았다. 외투의 옷소매에 눈이 희끗희끗 묻었다. 그는 이 눈송이의 하나를 가리키면서 “너는 이 눈송이 중에서 하나를 정말 본 일이 있니?”

“정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 무엇을 보았니?”

“눈송이를 보았지요! 눈송이요!”

체니 교수는 그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고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을 끄집어 내었다. 그리고 그것을 소녀에게 내밀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니?” 소녀가 머리를 흔들자, 그는 “이것은 확대경이란다. 이것으로 보면 물건이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 이것을 통해 보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럼 이 확대경을 통해서 눈송이를 살펴보자꾸나.” 하고 말했다.

교수는 눈송이 위에 조그마한 기구를 갖다 뒀다. 매리는 머리를 숙여 작은 눈송이를 보았다. 소녀는 잠시 동안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다시 교수를 올려다보았다.

“체니 교수님, 너무 예뻐요.”

“다시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매리는 확대경 가까이 눈을 대고 몸을 숙이고 눈송이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 소녀가 머리를 다시 쳐들자 체니 교수는 확대경을 다른 눈송이로 옮겨 갔다. 그녀는 다시 머리를 숙이고 그 눈송이를 자세히 관찰했다. 결국 소녀는 놀랐다는 눈 빛으로 얼굴을 들었다.

“이것은 또 다른 모양이군요, 교수님! 이것은 처음 것과 다른데요.”

교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매리를 보고 있던 다른 아이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호기심에 가득 차 가만히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교수는 그들에게 미소를 띄우며 그들을 그의 주위로 불러 세웠다.

“나는 매리에게 진짜 눈을 보았는지 물어 보았단다. 너희들은 어떠냐? 너

회들도 정말 눈을 본 적이 있지?”

“예, 교수님! 물론이지요!”하고 어린이들은 킬킬 웃어 댔다. 교수가 그들에게 하는 질문이 무슨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매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매리는 그녀의 옷소매에 있는 눈송이를 가리키며 “이 눈송이들이 모두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니?”하고 물었다.

새로 몰려든 어린이들은 눈송이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 틀림없이 같은 눈이지 뭐.”

노신사는 한 소녀의 털모자를 벗겨서 여러 개의 눈송이를 그 털 위에 받고서 그 소녀에게 확대경을 건네 주었다.

“그 눈송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모두 같은 모양인지 살펴보거라”고 했다.

다른 아이들이 바삐 다가 섰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작은 확대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이 작은 기구를 천천히 옮겨 가며 그들이 보고자 하는 눈송이를 모두 보았다. 잠시 후에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모자 위에 있는 눈송이는 각각 다른 모양이야.”하고 첫번째 소녀가 말하였다. “그렇지만 이젠 몇 개 안되잖아. 더 찾아 본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두 개가 똑같은 모양인 것은 찾지 못할 게다.”라고 교수는 얼른 대답했다. 그러자 어린이들의 얼굴에 이상하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이렇게 계속했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게다. 수백년 동안 눈은 겨울마다 내렸다.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도 실제의 눈송이를

본 사람이나 또한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 별로 없다.

“약 400년 전에 스웨덴의 클라우스 마그너스라는 사람이 그의 외투 소매에 떨어진 눈송이를 보았다. 클라우스 마그너스는 그 눈송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비로소 알았다. 그때 그는 너희들이 본 것처럼 아름다운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그 당시는 확대경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거든—그러나 클라우스는 자세히 살펴보고는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모든 눈송이는 결정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결정체는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그가 본 바를 이야기했으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마그너스씨는 컬럼버스와 같은 위대한 발견자였군요.”하고 한 소녀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했다.

“그가 발견한 ‘신세계’는 너무나 작은 것이군요!”하고 매리가 지적했다.

“네 말이 옳다.” 체니 교수가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신세계를 발견한 사람같이 클라우스 마그너스에 이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발견한 바를 개발하고 설명했다. 클라우스 마그너스가 눈송이를 관찰한 지 150년 후에 독일의 과학자이며 천문학자인 요한네스 케플러가 어느 날, 아침 밖으로 나왔을 때였지. 그날 아침은 오늘처럼 맑은 아침은 아니었다. 하늘은 흐리고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 몇 송이가 그의 외투 옷소매에 묻었지.

“그가 그 눈송이를 연구해 보니, 그것은 작은 결정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결정체는 정6각형임을 발견했다. 각 눈송이도 정6각형이었다. 그때 헤르 케플러는 똑같은 두 개의 눈송이는 없음을 발견했다. 그는 똑같은 모양의 눈송이를 찾아보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 보았으나 허사였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열심히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나요?”하고 매리가 물었다.

“몇 년 후에 르네 데카르트라는 프랑스인은 마그너스와 케플러가 한 것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 데카르트는 그가 발견한 사실을 논문으로 써서 발표했다. 그것을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 눈송이에 관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눈의 아름다움에 대해 신통치 않게 여겼으며, 소수의 사람만이 데카르트의 논문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일은 모두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 현미경은 확대경과 흡사한 것이나, 그 효능이 수천, 수만 배 큰 것이지.”라고 그는 설명했다. “약 250여 년 전에 현미경이 발견된 후 사람

들은 이 기구를 사용하여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많은 미세한 것들을 찾아 내게 되었다. 그들이 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현미경을 통하여 눈송이를 보았으며 수없이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고 글도 쓰고 토론하기도 했다.”

교수는 잠시 멈추었다. 매리는 수줍은 듯이 이렇게 질문했다. “체니 교수님, 교수님은 현미경을 갖고 계십니까?”

그는 그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매리야. 그것을 보고 싶으냐?”

“보여 주시겠어요, 교수님?”

교수는 다른 어린이에게도 미소를 지으며 “너희들도 진정으로 눈송이를 보기를 원하느냐?”하고 물었다. 모두 다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한껏 부풀었다. 교수는 점심 식사 후에 현미경을 갖고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바로 한 무리의 개척자 자녀들이 1850년 1월, 눈오는 어느 날 사물을, 특히 눈에 관해서 깊이 관찰하게 된 내력이었다. \*



# 미개척지의 소년

마저리 에스 캐논  
루린 지 윌킨슨

한 겨울로 접어들면서, 함박눈으로 언덕이 뒤덮이고 나무 모양도 둥글게 되었다. 버몬트주 쉐론에서는 성탄절 이틀 전쯤이면 누구나 기대하는 그런 날씨였다.

언덕에 흩어져 있는 몇 채 안되는 농가도 한밤중이 되자 깜깜해졌으나, 스미스가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성탄절이긴 했으나, 늦은 한밤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1805년 12월 23일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날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다음날, 한 이웃 사람이 스미스가를 방문하러 왔다. 큰 아이들인 알빈과 하이람이 그가 오는 것을 보았다. 알빈과 하이람은 그에게로 뛰어가며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었다. “우리 집에 새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예요, 아들!”

그들은 작은 농가 주위에 쌓인 눈더미를 헤치며 기쁨을 참지 못했다. 어린 여동생 소프로나는 유리창에서 코를 유리에 남작하게 대고 바라보고 있었다. 부친 스미스씨가 문을 열어 그들을 오게하고 이웃에게 아기를 보여 주었다. 아기는 엄마의 품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소리쳤다. “정말 사내 아기로군요!”

“그래요.” 루시가 말했다. “이 아기는 아버지 이름을 따라 부르겠어요.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을 작정이예요.”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으므로, 이웃 사람이 그들의 이웃에게 말로써 소식을



전하곤 했다. 그 이웃 사람은 그 집을 나서자 곧 마을 상점의 난로가에 물려둔 동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스미스 맥에 또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고 그는 알렸다. “그 집에 농사꾼이 하나 더 늘었군요.” 불을 쬐고 있던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러나, 루시는 부드러운 아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아기는 농사꾼이 아니라 지도자요 강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꿈을 꾸며 그녀는 미소지었다. 그는 버몬트 미개척지의 촌가에서 태어난 다른 모든 아기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그가 바깥 세상에 널리 알려지리라고 생각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었다.

그녀는 거칠 것 없는 상상의 세계를 헤매면서도, 이 조그만 새로운 요셉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도 수백만의 사람이 그를 따르며 그를 칭송하



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모든 일을 성인답게 거의 신과 같이 했다.”고 일침을 받을 것이었다.

참으로,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주께서 그를 지켜 주실 것이다.”

그 아기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러나 그가 여섯 살 때, 스미스가 의 자녀들은 발진티푸스를 앓게 되었다. 요셉은 다리가 너무 부어 올라 그는 그 고통을 참아 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요셉은 그를 치료해 주시는 스톤 박사가 오신 걸로 생각했는데, 그때 레벡카 퍼킨스가 문간에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루시, 새로 구운 꿀빵을 조금 가져왔어요.”

“고마와요, 레벡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요셉은 그것이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모친은 자신과 열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그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시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소프로니아는 90여일 동안을 앓다가 이제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해졌다.

“어린 요셉이 정말 딱하군요.” 요셉은 퍼킨스 부인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요. 그 애는 몇 주일 동안이나 심히 앓고 있어요. 발진티푸스로 어깨에 반점이 생기고 심한 고통을 받았어요. 스톤 박사가 그쪽을 절개하여 수술했더니, 이번에는 고통이 한쪽으로 옮겨 가 다리까지 내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 부위를 잘라서 감염된 부분을 떼어 내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너무나 빨갱게 부어 올라 있군요.”

“외과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어요.” 요셉은 부친이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무슨 말씀이 있을 때까지 좀더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다니 그다지도 오래 기다렸는데, 요셉은 생각했다. 모두 최선을 다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큰 형 하이람까지도 밤낮으로 요셉의 다리를 들어 주어 고통을 덜어 주기도 했다. 그러나 고통은 계속되었다. 요셉은 “아버지시여, 어떻게 참으란 말씀입니까?” 하고 절망적으로 외치기까지 했다.

그때 아버지가 “요셉아,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는구나.”하고 말씀하셨다.

레벡카 부인이 급히 작별 인사를 하고 나가자, 루시는 의사들을 방 한쪽으로 모셨다. “선생님, 우리 아이 다리를 구해 낼 수 있을까요?”하고 그녀는 물었다.

한 동안 대답이 없더니, 한 의사가 되도록 친절하게 말했다. “다리는 불치의 것으로 우리도 어쩔 수 없는데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절단 수술이 필요합니다.”

루시는 속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으려는 듯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안돼요! 어린 요셉을!” 그러자 그녀는 의사가 그의 딸 소프로니아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에게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쩔단 말인가. 그들은 하나님께 기적을 주시기를 간구했다. 요셉의 어머니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또 하나의 기적을 간구했다.

그녀는 머리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스투운 박사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노력해 보아 주십시오.”

의사들은 다시 진찰해 본 뒤에 감염된 뼈를 제거해 내기로 결정했다. 루시가 감염된 다리 밑에 접어 깔개갠 흠스런 핫이불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의사 선생님들은 요셉에게 그들이 취할 바를 말해 주었다. 그곳에는 고통을 잊게 할 마취제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의 어머니를 불렀다. “침대에 그를 묶어 놓을 줄을 좀 갖다 주세요. 술이나 포도주도 조금 가져 오시구요. 고통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에 항거했다. 그는 술도 원하지 않았고 묶이기도 원하지 않았다.

“어머니, 이 방에서 나가 주세요. 아버지가 지켜 주실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 시중을 들어 지켜 있





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아버지께서 침대에 앉아 나를 팔로 잡아 주세요. 그러면 나는 뼈를 잘라 낼 때 어떠한 고통도 참겠어요.”

한 의사가 반대했다. “너무 어려서 안 돼요. 그걸 견디어 내려면 얼마간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키가 크고, 햇볕에 탄 농부인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린 아들을 품에 꼭 껴 안았다.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그의 곁으로 잡아 당겼다. “주님이 나를 도와 주실 거예요……나는 그것을 견딜 수 있어요.”

수술이 시작되었다. 다만 아버지의 품에 매달려, 고통을 잊게 할 아무런 약품도 쓰지 않은 채 수술이 시작되었다. 참기 어려운 긴 시간이었다. 한 번 요셉의 어머니가 그의 외마디 소리를 듣고 방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어머니, 나가세요.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싫어요. 어머니가 멀리 계셔야 견디어 낼 수 있을 거예요.”하고 그는 흐

느꼈다.

참기 어려운 수술이 끝나자, 루시는 허겁지겁 침실 문가에 서서, 입술이 떨려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부추기며, 그녀를 보고 한쪽 손을 내밀었다.

순간 루시는 방으로 들어와, 어린 요셉의 침대가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얼마나 어리고 창백하게 보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침착한가.

요셉은 완전히 기진해 있었으면서도 어머니가 오시는 것을 알았고, 그는 여기지기 쓰다듬어 주는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다. 그는 눈을 뜨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불안을 씻어 주었다.

스토운 박사는 이마의 땀을 닦아 냈다. “아주 잘 되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린 요셉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의 다리는 완쾌되었다. \*

“아버지께서 침대에 앉아 나를 팔로 잡아 주세요.  
요. 그러면 나는 뼈를 잘라 낼 때  
어떠한 고통도 참겠어요.”

## 1980년에 개최될 세계 계보 대회

유타주 계보협회는 1980년 8월 12일에서 15일까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세계 계보 대회를 개최한다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이 발표하였다. "계보와 조상을 찾는 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지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신 킴블 대관장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계보 대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우리는 이 흥미와 관심을 적절히 이용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 1980년 8월에 세계 계보 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1980년은 우리 교회가 조직된 지 꼭 150년이 되는 해이며 그 대회를 이때에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자라는 이번 대회 주제를 통해 개인 및 가족 역사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될 것입니다."

지난 해에 조상을 찾고 가족의 역사를 탐구하는 데에 경이적인 관심을 일으키게 했던 작품 "뿌리"의 작가인 엘릭스 헤일리가 대회에 특별 연사로 초청되며 기타 기록을 보관하는 사람, 도서관 종사자, 인구 및 통계학자 및 약 일만 명으로 예상되는 아마츄어 및 전문 계보 학자들이 약 200개의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 일년에 두 차례 갖게 될 스테이크 대회

1979년부터 모든 스테이크는 회원들의 시간, 여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년에 두 번씩 스테이크 대회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31일 금요일에 가진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킴블 대관장님에 의해 발표되었다.

## 개축된 하와이 신전 재헌납

성도들이 서부로 이주한 후 유타주 이외의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하와이 신전이 지난 6월 13일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에 의해 재헌납되었다.

태평양의 진주로 불리운 하와이 신전은 지난 2년 동안의 대대적인 개축 공사를 마치고 신전 의식을 위해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700여명의 내외 초청 인사를 모신 가운데 헌납식이 신전에서 거행되었다. 6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브리감 영 대학 하와이 분교 대강당에서 8개의 모임이 속행되었으며 하와이에 있는 10개 스테이크의 회원이 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대학 구내에서 열린 각 모임에서는 헌납 기도를 되풀이해서 들려 주었다. 킴블 대관장님은 9개의 모임에서 말씀하셨으며, 다른 총관리 역원도 말씀을 하였다.

이번 신전 헌납식에는 킴블 대관장님을 위시하여 대관장단에서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롭니 부대관장님,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매리온 디 행크스, 오 레스리 스톤, 에드니 와이 고마쓰,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가 참석하였다.

대관장님의 개인 비서인 디 아서 헤이록 형제도 참석하여 말씀을 하였다. 헤이록 형제는 하와이에서 선교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 ☆

두 차례의 스테이크 대회 중 한 번은 지역 대표가 참석하게 된다.

## 김 태석 형제 선교사 출발

서울 스테이크 제3와드 소속 김 태석 형제가 6월 27일 최 육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의 안수를 받고 28일 부산 선교부로 2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떠났다.

김 형제는 선교사로 떠나기 전 3와드에 서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했다.



조 경환 형제

## 유 강숙 자매 선교사 출발

서울 스테이크 잠실지부 소속 유 강숙 자매가 7월 30일 최 육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의 안수를 받고 8월 1일 부산 선교부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떠났다.

유 강숙 자매



김 태석 장모

## 조 정환 형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당선

서 스테이크 제7와드 감독단 보좌인 조 정환 형제가 제2대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조 형제는 7와드 주일학교 회장, 장로 정원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감독단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조 형제는 건국대 법과를 졸업하였으며, 재경 호남 동지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 현재 조흥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신임 감독 / 지부장단 소개



## 부산 선교부

진해 지부

지 부 장 : 박 남 수

제 1 보좌 : 황 효 연

제 2 보좌 : 서 희 교

# “복숭아보다는 훌륭한 인간을”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우**리는 모두 역경을 겪게 됩니다. 주님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역경을 주십니다. 인간이 강하게 되기 위한 교훈을 배우는 곳은 성공의 금자탑이 아니라 고통의 심연인 것입니다. 인간은 성공의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감사하고 우리가 강하고 용감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때때로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아이다호에서 농사를 시작한 한 젊은 부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수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개간되지 않은 40에이커의 토지에 대한 할부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도 복숭아를 재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고르고 가지를 자르고 나무를 심고 잡초를 뽑고 관개를 하며 수확을 거둘 때까지 돌보았습니다. 어느 봄날 파수원

은 꽃이 만발하여, 마치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서리가 내려 모든 농작물이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준은 그 주에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그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교회에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그가 속해 있는 와드의 감독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감독은 밭에 나가 있는 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 형제님, 여러 주일 동안 교회에서 뵈지 못했군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감독님은 내게 이런 일을 내려 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감독에게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감독도 마음이 언짢았으며, 존에게 그런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땅을 내려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형제님, 주께서는 형제님이 서리가 내리면 좋은 복숭아를 생산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서리가 내리지 않았다면 형제님이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복숭아보다는 훌륭한 인간을 만들어 내는 데 더욱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존 형제는 다음 일요일 교회에 나갔으며, 다음해에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후에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수년 전에 아이다호 밴크 로프트 근처에서 열렸던 어느 모임에 참석할 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일부는 대학의 봉사 단체에 의해 주최되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이 끝난 후, 나는 그 모임에 참석한 농부 몇 사람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요스트라는 분에게 나는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요스트 형제님, 농장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요스트 형제는 “벤슨 형제님, 좋습니다만 3년 전보다는 약 2만불 정도로 감수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또 서리 때문인가요?” 그는 “예, 아직 밀 이삭이 익기도 전에 서리가 몰아쳤지요. 그러니 사태는 뻔하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풀베는 기계로 밀어 버릴 작정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창고에 밀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는 적어도 1년간 먹을 양식은 언제나 비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굶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해에 거두어 들이면 되니까요.” 그와 작별하면서 나는 아내에게 “얼마나

훌륭한 정신이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간으로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데리고 갔으므로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 주려고 메인 스트리트에 차를 세우고 식료품상에 들렸습니다. 그때 보도에서 바로 요스트 형제를 만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어디 가십니까?” “벤슨 형제님, 오늘은 우리 가족이 신전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을 받으시고도 형제님은 끄떡 없으시군요.” 그러자 그는 나에게 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벤슨 형제님, 역경이 닥쳐오면 우리는 오히려 더욱 신전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교회와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일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을 가진 남자나 여자는 어떠한 역경도 감당할 수 있으며 여전히 아름다운 영과 강한 신앙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흡족함을 느낍니다. 나는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의 유럽에서 이 교회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알기로는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었으며, 각 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목격한 교회의 몇몇 회원들은 천에는 행복하고 부유했으나 전쟁 중에 집을 잃고 모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건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들이 역경 중에도 굳건히 서서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해 간증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축복, 즉 영원한 결혼 성약의 축복, 가족 관계는 장막 저편에서도 계속된다는 확신, 사후에도 생이 계속되며, 합당하게 산 자들은 기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을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역경은 오히려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어 우리를 보다 강하고, 용감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합니다.

나는 자주 예언자 요셉에 대해서, 그가 대신하고 섬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 지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겪은 시련과 환란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리버티 감옥에 처음 그리고 두번째 들렸을 때 그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비열한 인간들에 둘러싸여 하루도 아니고 수주일도 아닌 수개월 동안 추악한 감옥에 있었음을 기억하십니까? 결국 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린 큰 휘장이 어디 있나이까?”

“언제까지 당신의 손이 가만히 계시며 영원한 하늘에서 당신의 눈, 곧 당신의 깨끗하신 눈이 당신의 백성과 종의 피해를 바라보시며 당신의 귀가 저희 울부짖음을 듣기만 하려 하시나이까.

“오 주여, 언제까지 저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으며 부당한 압박을 받게 버려두시며 어느 때에 당신의 마음이 저들에게 향하여 부드러워지시며 저들을 붙잡혀 여기서 동정하시겠나이까?”

“오 우리 하나님이지여, 환난 당하는 당신의 성도를 기억하소서. 그리하면 당신의 종이 당신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뻐하리이다.”(교성 121: 1-3, 6)

이때 예언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답이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나의 아들이,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

넢게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

“네 친구는 네 편이 되어 따뜻한 마음과 우정어린 손으로 또다시 환성을 울리며 너를 맞이하리라.”(교성 121: 7-9)

이같이 약속하시고, 또한 이같이 은화하게 징계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용과 같지는 아니하니, 네 친구는 용에게 한 것같이 너와 다투거나 네게 죄를 지우지도 아니하느니라.”(교성 121: 10)

그리고 또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게 죄를 지우는 자들의 소망은 헛될 것이요, 저희 기대는 녹아 없어 지리니, 돌은 해의 내리쬐는 햇살에 흰서리가 없어지듯 하리라.”(교성 12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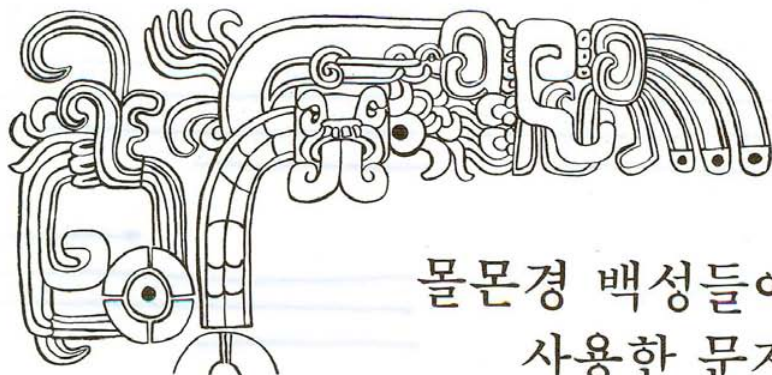
또 한때 주님은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너를 조롱하며 지옥도 네게 향하여 분노하리라.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게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위와 축복을 구하리라.”(교성 122: 1-2)

그런 다음에 주님은 이와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함정에 던져 살인자의 손에 넘기고 사형을 선고할지라도, 저들이 너를 깊은 바다에 던질지라도, 물아치는 파도가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열풍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아오고 풍우화석이 모두 힘을 모아 길을 가로막으며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이 네게 크게 입을 벌려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

“인자는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 너는 저보다 크뇨?”(교성 122: 7-8) \*



## 물몬경 백성들이 사용한 문자

존 엘 소렌슨

**말** 일성도인 우리는 물몬경을 통해서 고대 아메리카인들의 문자에 관해서 다소 알 수 있다. 우리가 얻은 이러한 지식은 학자들의 고증으로 보다 확고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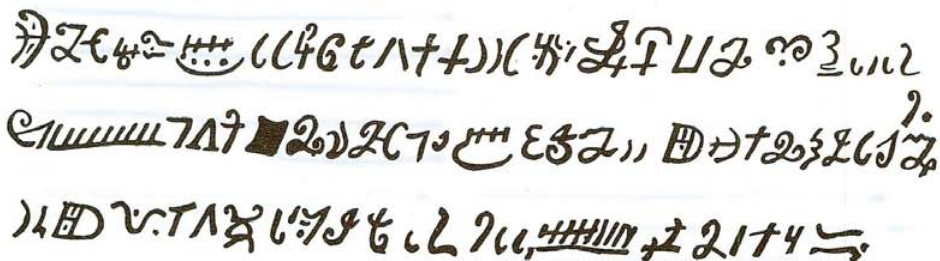
고대 서반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실히 밝혀진 이 문자는 멕시코 중남부 지방과 중앙 아메리카 북부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6종 이상의 각각 다른 문자들이 발견되었다. 수세대에 걸쳐 학자들은 고대 아메리카의 상형 문자 체계를 연구 끝에 부분적인 관독에 성공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 국가에서는 알파

벳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의 어절이나 단어 대신에 하나의 문자를 사용했다. 이 문자를 “상형 문자”(“뜻글자”)라고 부른다. 상형 문자 체계에는 각 문자에 각 단어나 뜻을 나타내는 수백 수천의 문자가 있다. 중국어나 에집트 문자가 이에 속한다. 마야와 그의 신세계 민족들의 문자도 이와 같다. 에집트의 그림 문자만 해도 약 750개가 있으며, 이것은 고대 중앙 아메리카의 것과 거의 같은 숫자이다.

이러한 부호는 대체로 하나의 핵심이 되는 뜻을 가진다. 발자국 모양의 문자는 “발”을 뜻할 수도 있으며 또한 “가

물몬경에 기록된 문자는 다소의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병용해 사용한 것 같다.





이러한 상형문자는 하나의 중심 개념을 지니고 있다. …… 의미는 문맥이나 기타 추가되는 다른 기호를 통해 분명해진다.

다” “여행하다”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독자는 그 문자의 정확한 의미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문맥이나 또는 다른 문자를 보충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물론 알파벳과 같이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도 있기는 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그러한 기호는 완전하지도 않았으며 널리 보급되지도 않았다. 그 결과 그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깊은 연구가 필요했다. 평민은 이러한 문자를 연구할 시간이 없었다. 주로 승려나 다른 지배 계층에서 이 복잡한 문자를 익혔다.

물문경에 기록된 문자는 다소의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병용해 사용한 것 같다. 주후 400년경 모로나이는 그들이 “개정된 애굽어”(물 9 : 32-33)라고 일컫는 문자로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이 니파이의 기록은 다소 복잡하고 비능률적이었다. 물론은 이렇게 기록했다. (니삼 5 : 18) : “우리들의 언어로 합당하게 기록되지 못할 것이 많다 할지라

도…” 그의 아들 모로나이는 주께 이렇게 불평했다. (이더 12 : 24-25) “당신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손재주로 조금밖에는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기록한 때에 그연약함을 아오며, 말을 어찌 써야 할까로 어려움을 당하는지라” 결과적으로, 그 문자를 완전히 통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베나민왕은 그의 세 아들에게 “유대인의 학문과 애굽인의 언어(즉 문자)”(니일 1 : 2)가 포함되어 있는 “조상들의 온갖 언어”에 능숙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학문을 닦기가 어려웠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어떤 백성은 가난하여 배울 기회가 없어 무지하였고, 부유한 자들은 재물로 인하여 많은 학문을 닦았던지라.”(니삼 6 : 12)

언뜻 보면 모로나이의 개정된 애굽어와 고대 아메리카인의 상형 문자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으나, 마야인의 그림 문자는 결국 그 조상 리하이가 팔레스타인에서 가져온 애굽인의 그림 문자와 동일한 원리임이 판명되었다. 물론 특정한 문자는 계속해서 개정되었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전해져 쓰이는 대로 다듬어져서”(물 9 : 32)라고 모로나이가 말했듯이 “개정된 애굽어”라 일컫게 된 것은 과히 어긋난 표현이 아니다.

개정된 애굽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톤 교수의 사본, 즉 마틴 해리스가 안톤 교수에게 보이기 위해 물문경에서 베꼈다고 추정되는 7줄의 문자의 사본이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복사되었으며, 사실 그 사본의 어느 쪽이 윗쪽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안톤 교수는 후에 그가



본 바를 이렇게 기록했다.

“그 문자는 중국어처럼 새로로 쓰여져 있었으며… 각종의 문자들은 서투른 솜씨 때문인지 원래의 글자 모양이 그랬기 때문인지 빼들어져 있었으며 반달, 별, 기타 자연물 등 잡다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체 모양은 멕시코의 12궁도의 조잡한 묘사로 끝맺어 있었다.”

다시 한 번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직식의 서술을 되풀이했다.

“전체는 원형의 조잡한 모양으로 끝나 있었으며,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 이상한 부호의 활모양으로 되어 있어 명백히 험볼트가 발간한 멕시코 달력을 복사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출처를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복사한 것은 아니었다.”(비 에 이치 로버츠, 교회 약사, 1: 100-107)

안톤 교수는 그가 목격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유일한 목격자이므로, 우리는 불문경의 금판 위에 기록된 문

자는 고대 아메리카인의 “코우텍스”, 즉 사본과 같았으며 수직의 그림 문자로 되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디에고 데 란다 신부는 스페인의 정복 이후의 유타칸(멕시코)의 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이 사람들도 또한 어떤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문자로 책을 썼으며 그들의 고대의 사건과 학문을 기록했다. 이러한 문자와 그림과 그림 속에 들어 있는 어떤 부호로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이해했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우리는 이러한 문자로 기록된 많은 책들을 발견했다.”(레라시온 데 라스 코사스 데 유카탄, 번역, 에이 엠 토저(캠브리지, 매사추세츠; 피바디 박물관, 1941년), 27-28페이지)

란다와 다른 스페인 성직자들은 이 책들은 악마의 것이라고 하여 원주민들에게서 빼앗아 불살라 버렸다. “이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초래하게 되었

이 마야인의 책들은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만들어졌다.



다.” 왜냐하면 이 책들은 그들의 가장 가치있는 소유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마야인의 책들은 무화과나무와 비슷한 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만들어졌다. 이 책의 긴 책장은 아코디언처럼 포개져 있어 일부 또는 전체를 펼칠 수 있었다. 이 책의 각 “페이지”는 접혀 있어 오른쪽 것과 왼쪽 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중앙 멕시코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기록은 보통 두루마리처럼 말게 되어 있었다.

물문경은 종이로 된 책과 금속판으로 된 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엠로나이 하성에는 사악한 지도자가 엘마와 엠올레크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까지도 불 속에 처넣었을 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복음이 적힌 경전을 한테 모아 불 속에 던져 처치하였다. (엘 14 : 8, 14. 엘마서 63 : 12에서 금속판에 “새겨진 모든 기록들”은 종이에 기록된 기록과는 구별됨을 유의한다.)

로버트 카르막 박사는 파테말라의 키체가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는 전통적인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각 종족에는 그 종족 책과 역사 기록자와 서기가 있었다. 그들의 책에는 그들의 기원과 통치권, 그들과 주위의 민족과의 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실려 있다. 이 성스러운 책에는 이들의 운명도 예언되어 있다. 스페인 정복 이전의 실제 역사책은 겨우 3권밖에 보존되어 있지 않으나, 이 수신했던 전통적인 역사 기록은 구어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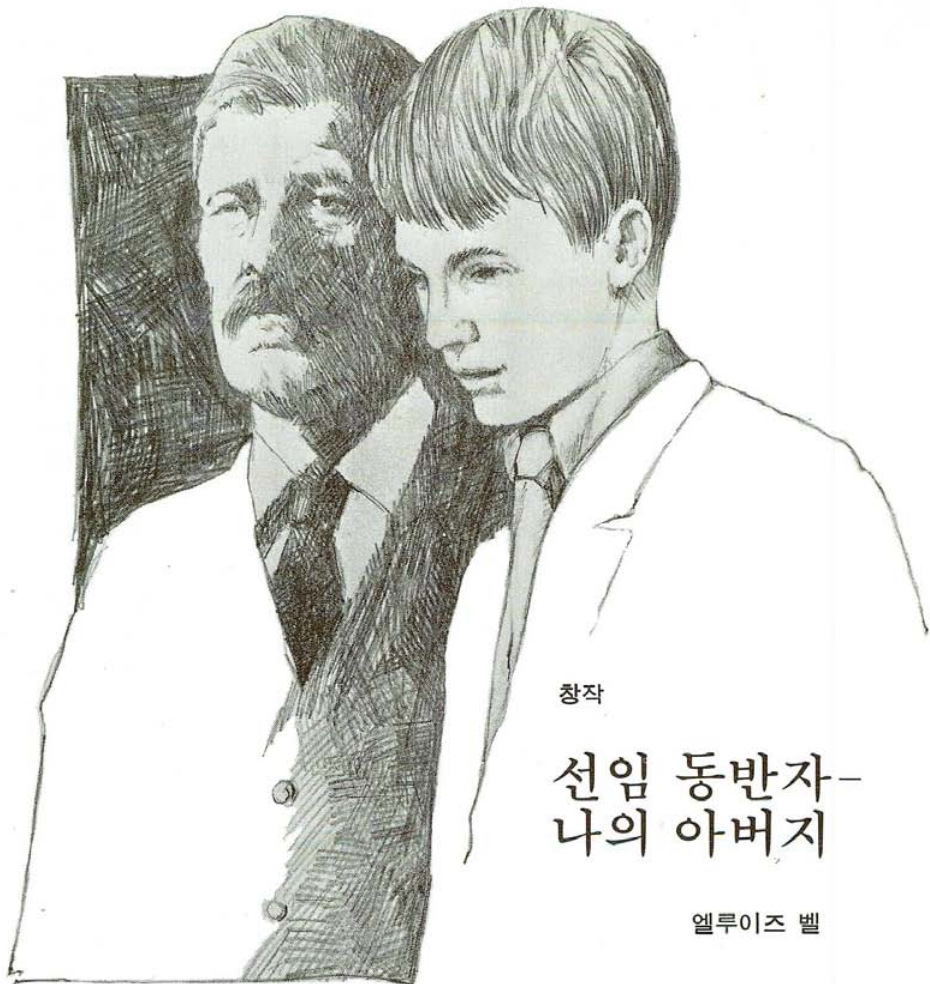
이 글자의 소리는 물문경과 흡사했다. 니파이와 그의 자손들은 자신의 기록(두 가지 종류의 기록,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기록 하나는 종교적인 일에 관한 것. 니일 9 : 3-4, 니이서 4 : 14)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아버지의 기록

도 보관하고 있었다. 그들의 통치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리하이의 기록을 필요로 했던 레이맨과 레뮤엘의 후손들은 니파이가 그들로부터 통치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들은 니파이인과 니파이인이 갖고 있던 기록들을 파괴시키려 했다. (엘 54 : 16-24 ; 이노 1 : 14 참조) 그 당시 그곳에는 지니프 백성들의 기록과(모 25 : 5), 엘마의 기록과(엘 63 : 16), 힐라멘의 기록(힐서 16 : 25)과 다른 많은 기록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기록이 한 책으로 합본되어 오늘날 모사이야서에서 모로나이서가 되었다.

물론 모든 기록이 종이나 금속판에 기록된 것은 아니었다. 돌에 새겨진 기념비(“석비”)는 또한 물문경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었다. 음나이서 20절에서 22절까지는 코리엔툼오어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그는 그의 백성과 그의 혈통의 기원과 그들의 운명에 관한 기록을 큰 돌에 새겼던 야렛 백성의 최후의 왕이었다. (이더서 1 : 6-32 및 10 : 32에서는 24개의 야렛인의 금판은 전체 혈통이 아닌 한 혈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년간 학자들은 마야의 석비에는 학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점성술이나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기보다는 실제로 “정복, 포로의 굴욕, 왕족의 결혼 생활, 왕족의 후손”등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미카엘 코 박사가 최근에 이것을 발표했음) 코리엔툼오어의 석비에는 왕족의 혈통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고대 아메리카의 기록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 놀라운 주제에 관해서 보다 많이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한다. \*



창작

## 선임 동반자- 나의 아버지

엘루이즈 벨

**토**요일 아침은 선교 본부에서 자료를 배부하는 시간이라 인근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물문경이나 소책자, 테이프 및 20세기에 복음을 전하는 데 소요되는 기타 모든 자료를 가지러 몰려들었다. 선교 본부 사무실에는 장로들과 일을 처리하는 자매들로 가득 차 선교 소식을 서로 나누고, 각자 물품을 챙길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보통 때처럼 조그만 사무실에서 계간 보고서를 타자기로 작성하고 있는

데 그 문밖에서 리차드 에릭슨 장로가 앉아 있었다. 그의 갈색 표지의 경전 합본은 한쪽 무릎에, 그리고 토론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검은색 노트북이 다른 쪽 무릎에 펼쳐져 있었으며, 빨간 색연필이 그 사이를 부지런히 오갔다.

우리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일을 마쳤다. 나는 완성된 보고서를 타자기에서 빼냈으며, 그와 동시에 그도 그의 책을 덮었다.

“장로님은” 하고 나는 말했다. “이제

3개월째 선교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잘 되어 나갑니까?”

그는 소리 없이 웃었다.

“아닙니다, 자매님. 나는 그보다 더 오래 했읍니다.”

“아, 언어 훈련 선교부에서 지낸 8주간의 과정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나와 같이 나온 다른 선교사들보다 두 달 먼저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에릭슨 장로님이 다른 선교부에서 이 전되어 왔다는 말인가? 나는 정말로 훌륭한 정보망을 갖고 있는 줄 알았으나 그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아파서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인가? 언젠가 그런 일도 있긴 했었다.

“좋아요. 기뻐하겠어요. 호기심이 나는데요. 장로님은 훌륭한 선교사로 평판이 대단하신대요. 사실이요, 성탄절이 되기 전에 장로님이 선임이 되시리라는 풍문이 있어요. 그 두 달간의 일이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모양이지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까지 내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내가 선교사 부름을 받은 날이었다. 주 대표 야구 선수나 독수리 소년 단원(이글 스카우트)으로 뽑힌 것도 그에 비교할 수 없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들이 두 달 동안 할머니와 함께 피닉스에서 지내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와 나만이 집에 남아 있었다. 나는 어머니께 그 좋은 소식을 전화로 알려 드렸다.

“아버지!” 수화기를 놓으며 나는 말했다. “아직도 믿기 힘든데요. 엄마도

무척 기뻐하세요. 할머니 기분도 좀더 좋아하셨다고 말씀드릴래요. 정말 기가 막힌데요.” 나는 문틀을 잡고 휙 돌아 보기도 했다.

“지금부터 선교사를 시작해 보면 어떻겠니?”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다. “정말이지, 내일부터라면 좋겠어요. 언어 훈련 선교부에 들어갈 때까지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아니, 리차드야. 지금부터 선교사를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지?”

“지금요? 그렇지만 아버지, 편지에는 ‘3월 20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선교 본부로 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보다 일찍 받아 주겠어요? 나는...”

“교회 선교 본부에서 시작하자는 게 아니다. 여기서 시작하자는 뜻이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큰 가죽 의자에 조용히 앉으셔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아버지의 얼굴 표정에서 나는 방안을 서성대던 것을 멈추게 되었다.

나는 의자를 난로가로 끌고 와 잠시 기다렸다.

“리치야, 나는 무슨 설교를 하자는 게 아니야, 너는 선교사를 위해 잘 준비했어. 우리 모두가 그건 잘 알고 있단다. 준비할 것은 다해 두었지. 요즘에 와서 내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나는 눈앞이 흐려 두두근을 매는 척 해야 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 선교 사업이란 힘든 것이다. 네 또래의 젊은 애들이 전혀 겪어 보지 못한 좌절감과 문제점을 대부분이 이내 맛보게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좌절감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을

성장하게 해주지. 그러나, 그러한 좌절감을 이겨 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선교 사업을 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버지, 나는 준비가 되었노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큰 문제에서는 그렇다. 너는 신권을 존중하고, 정원회 일도 열심히 했으며, 지난해에는 신학원 중등부와 대학부 과정도 잘 이수하였지.”

“그런데요?”

“나는 작은 것에 대하여 말하는 거야. 네 어머니나 나는 네게 책임감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애썼고, 네가 대체로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웃으셨다. “엄마가 너를 어린 아이 다루듯해서...”

“아, 아버지!”

엄마란 그런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엄마의 특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선교사에게는 여러 가지 사소한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다. 너와 내가 이제부터 시작해 보면, 네가 훨씬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기 휴가 동안 우리들이 독신자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선교사로 동반자가 되어 어떤 집을 배울 수 있는가를 알아보자.”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말씀을 끝내셨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선임이 되시고 내가 후임 선교사가 되는 건가요? 굉장한데요! 그렇지만 그래서 무얼 하죠? 복음 전도하러 가요? 비결로우 자매님 맥이나 영 형제님 맥을 찾아가는 것 등이죠?” 내가 부친과 함께 칙칙한 색깔의 옷을 입고 이웃의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의 얼굴 표정에 나타날 놀라는 표정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아니,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는 내 생각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하자. 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구나.” 아버지는 일어나서 몸을 쪽 펴셨다.

“그러세요, 아버지. 곧 시작하세요. 나는 한밤의 쇼를 좀 보고 나서...”

“한밤의 쇼는 안된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요, 장로님.” 아버지의 얼굴에 나타난 새로운 표정은 이 새로운 선임 동반자에 대하여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자, 그만 일어나요.” 하는 큰 소리가 들려 왔다.

나는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는 특히 여름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내 방을 지나치시곤 하셨었다. 그래서 나는 시계를 보았다. 오전 6시밖에 안됐군! 나는 웃음을 머금으며 침대의 잠자리로 기어 들어갔다.

“아버지, 좀 이상하시네요!” 나는 몸을 뒤척이며 소리쳤다.

문이 팍 열렸다.

“그만 일어나시오, 장로! 기도를 마치고 나서 곧 자리를 정돈하시요. 20분 내로 부엌으로 나오도록 해요.” 이번에는 조용히 문이 다시 닫혔다. 나는 놀라서 문쪽을 쳐다보았다.

내가 일을 마치고 부엌에 가 보니, 식탁은 정돈되어 있었으나, 아버지는 조반을 준비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창문가에 있는 어머니의 의자에 앉아 경전을 읽고 계신 곳에 흰색과 보라색의 커튼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오늘은 네가 조반을 차려라.”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했다. 내가 찬장으로 다가가서 미수가루가 든 상자를 꺼내려 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된다. 그런 음식을 먹고는 선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한 번만 말할 테니, 잘 들어 두어라.” 아버지는 오른손 네 손가락을 쳐드셨다.

“건강을 가져다 주는 네 가지 기본 식품을 기억해 두어라. 식사 때마다 섭취해야 한다. 우유나 우유 제품, 고기나 단백질, 과일과 야채, 곡분이나 곡식 등 이 네 끼니마다 취해야 하는 네 가지 기본 식품이다. 자, 할 수 있겠지?”

나는 냉장고 속을 부지런히 뒤지며, 어깨 너머로 아버지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조용하시고 태평하시던 아버지가 어찌 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눈물까지야 나지 않았지만, 땀을 비오듯 흘리며 땀방울도 두세 방울 흘리며 (과일칼로 손가락을 다쳤던 것이다.) 7시까지 가까스로 네 가지 기본 식품을 식탁에 차려 놓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런 말썸도 안 하시고,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전에도 내가 언제나 보아 왔듯이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다.

식사 후에 우리는 함께 식탁을 치우고 그릇을 닦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공부할 시간이요. 장로, 여기 앉아 합시다.”

“자, 너는 아침에 슈퍼마켓에 나가서 일하기로 되어 있지? 그러면 오후에 자유 시간이 남겠구나. 감독님께 내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기뻐하시더군요. 감독님이 우리 가정 복음 교육 임무 지명을 바꾸어 주셨어. 자 여기 새로운 명단이 있다.

나는 그것을 들어 보았다.

“잘 되었는데요. 아버지, 이 명단은 와드 내의 모든 비활동 회원이 포함 된 것 같아요.”

“아니다. 다 할 수야 없지. 그러면 우

리가 바빠서 되겠니? 오늘 저녁에는 네가 이 명단을 살펴보고, 그 사람과 가족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거라. 우리가 그들을 도우는 방법과 그들에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거라. 특히 마린 가족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오늘 저녁에는 그 집에 가서 네가 공과를 전달하도록 해라. 자, 난 나가 보아야겠구나. 다섯 시 좀 못되어 돌아오겠다. 오늘 저녁 식사는 내가 준비하겠다. 그 동안 너는 공과 준비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아버지는 나가셨다.

나는 마린 가족과의 첫 모임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 놓았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식이 아니라 설교를 한 셈이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기침이 터져 나왔다. 나는 린다 마린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학교 생활이 재미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두번째 단제로 접어드셨다. 나를 여섯 시에 깨우는 대신에, 가벼운 외출복 차림을 하시고 5시 30분에 문을 여셨다. 아버지는 내가 야구 시합에나 쫓아 다니던 시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듯했다.

“선교사들은 많이 걸게 된다. 특히 네 임지에서는 더욱 그러할 게다. 미리 연습해 둘 필요가 있다.” 하시고는 집의 북쪽에 있는 언덕으로 기운차게 올라가셨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다음 순서는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두컴컴한 새벽 길을 헤쳐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자 그러면”이라니?

“형제 자매 여러분”하고 아버지는 말

을 꺼내시고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지부에 새로 오신 리처드 에릭슨 장로님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에릭슨 장로님께 몇 마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에릭슨 장로님은 신앙에 대하여 잠시 말씀하시겠습니까.”

“에릭슨 장로님.”하고 잠시 사이를 두고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며 신앙에 대하여 2분만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숲속에서의 설교가 끝나자, 선임 에릭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다. “형제 자매님, 내일은 에릭슨 장로님이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날 밤, 후임 동반자는 경전 합본과 성경 색인 및 요셉 스미스의 신앙 강화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나 스스로도 말씀이 훌륭하였다고 생각되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으며, 나는 하루 건너 네 가지 기본 식품의 조반을, 그리고 저녁 식사를 차렸다. 저녁에는 규칙적으로 가정 복음 교육을 하기 위해 지명받은 가족을 방문했다. 밤에는 경전을 암송하고 산책을 하면서 “지명받은” 말씀 준비를 했다. 나는 직접 세탁도 하고, 방도 치우고, 번 돈의 예산을 세웠다. 나는 5시 30분에 일어나고 밤 11시까지 잠자리에 드는 일을 철저히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수련하고 있었음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그 시기에 나는 자신을 낮추게 되었다.

“리치야, 다음 주일에는 특별한 과제가 있다.” 아버지께서 수요일쯤 되었을 때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감독님께 오크 크레스트 요양소에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둘

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내가 사회 하면 네가 개회 기도를 드리고, 내가 반주를 맡으면, 네가 지휘를 하고 그런 식이지. 우리가 함께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고 말씀을 하고, 그런데 내가 폐회 기도를 하겠다.”

나는 집에서 한 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조그만 협곡에 있는 요양소에 방문한다는 데 대해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병원 같은 곳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나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교사처럼 행동해야 하겠지.

다음 일요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오크 크레스트에 도착해 보니, 참으로 문 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길로는 선교사처럼 행동하고 있었으나, 마음속은 여전히 옛날의 인기있는 야구 선수였던 리치 에릭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요양소는 깨끗고 현대적인 시설이 되어 있었으며, 색채도 밝고 직원들도 명랑했다. 그러나 그 환자들은! 그것은 다만 그들의 주름진 창백한 얼굴과 천천히 절룩거리며 걷는 걸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대서도 아니다. 내가 놀란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너무나 외로와 보였다는 점이었다. 방안 여기저기에 친 구나 가족들이 노인 환자를 찾아 담소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다. 이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계층의 사람들로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부터 고립되어 있는 듯이 보였다. 나는 여기서 그들의 신분은 돈이나 아름다움이나 힘이 나 지식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음을 알

았다. 누군가의 방문을 받게 되는 사람이 으쓱해지게 되었다.

우리는 작은 오락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20여 명의 환자가 휠체어에 몸을 싣거나 접는 의자에 앉아 지팡이를 곁에 내려 놓고 모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버지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아버지 옆에 앉아서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동안, 피곤에 지친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으며, 구식 안경 속에서 눈 빛이 반짝였다. 내가 기도하려고 일어나자, 전에 드렸던 공식적인 기도가 창문 밖으로 빠져 나갔다. 나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기운을 얻어 즐거운 마음으로 강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것을 조용히 간구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갔다. 노래를 하면, 그들의 떨리는 음성이 우리를 따라 부르고, 성찬을 축복하여 전달하니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 들었다. 나는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은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방에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음을 알고는 나는 무척 놀랐다. 그들의 얼굴은 붉고, 지치고, 주름잡혀 있었으나, 특히 성찬을 전달한 후에는 그들은 평온하고 빛나는 얼굴 표정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말씀을 시작하시자, 내가 우리 와드에서 흔히 하던 속삭임이나 하품이나 몸을 뒤척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고요하고 온화한 음성에 흠뻑 취해 있었으나, 그보다도 그가 하는 영적인 말씀에 몰두한 듯하였다. 그들은 이제껏 받아 보지 못한 위안을 받았다. 내

등골에 어떤 전율이 지나갔다. 그날 내게 성신이 함께 하는 듯했다.

“아버지, 바로 그런 것이었군요.” 하고 나는 물었다. “시간, 운동, 네 가지 기본 식품, 경전 암송, 그런 것...” 나는 뜻 모를 소리를 했다.

“그러한 것이 수단이 되는 것이지. 건강한 몸, 준비된 마음, 복음 계획에 대한 지식, 네가 피곤하거나 낙심하였을 때 나아가는 훈련... 그런 모든 것이 수단이 되는 것이란다. 그러한 것으로 해서 너는 신권을 행사하게 되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죠.” 나는 말을 끝맺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영원한 삶을 변화시켜 진심으로 축복해 주기 위해서지요.”

“장로님! 에릭슨 장로님, 감사다. 점심 시간 후에 구도자를 만날 약속이 있습니다.” 섭웨이 장로가 코트를 입고 한 손에 책과 소책자 꾸러미를 들고서, 선교 본부 복도에서 그의 동반자를 불렀다.

“장로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읍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장로님은 정말로 선교 사업을 일찍 시작하셨군요.” “글쎄요.” 그는 목도리를 둘러 코트 속으로 집어 넣으며 대답했다. “나는 여가서가 아니라 집에서 어려운 일을 겪은 셈이죠. 나는 자연스럽게 아무런 생각없이 기술 습득을 한 것입니다. 제시간에 일어나기, 옳은 식사법, 경전 공부, 단정히 하기, 이야기하기 등을 선교사로 일하면서가 아니라 그전에 이미 그러한 일에 익숙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가치를 알게 되었으며 그 점에서 나의 선임 동반자이셨던 부친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웃음을 띠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갔다.

✱



# 극기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칠십인 제일정원회 회원 및  
텍사스 산 안토니오 선교부장



지 난 수개월 동안 나는 선교부장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매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난 “극기”라는 주제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 : 39)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미대목을 방문하셨을 때에도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이르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니삼 12 : 3)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말일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명령하나 인간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나의 약속을 취소하나니, 저들이 축복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 때에 저들이 마음속으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저희 상은 땅 아래로 숨어 버리며 하늘에서는 내려오지 아니할 연고니라.”(교성 58 : 32-33)

내가 알기로는 극기란 가장 훌륭한 성품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또한 많은 젊

은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 예일 대학의 수영부 선수들이 세계 기록을 많이 갱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묻자 코치는 “난 그들에게 고통의 장벽을 부수도록 가르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선교부의 한 장로는 많은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알레르기성 피부에다가 기관지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선교부에 도착했을 때 그는 허약해져서 독감에 걸리거나 앓을까 하고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려 올 때에도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두세 시간 가량 잠을 잤습니다. 그의 동반자는 실망해서 내게 사정을 알렸습니다.

나는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상태가 펍 나쁩니다. 그렇지만 처음 선교 사업을 할 때보다는 나아진 편입니다. 몇 시간씩 일을 더해도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장로를 사무실로 불러서 아예

---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 여러분, 선교 사업은 쉽기 때문에 인생의 훌륭한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극기를 기꺼이 실행하는 선교사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

독감에 걸릴까 봐 걱정할 것 없이 독감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냐고 제언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어려움을 그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의사도 더 이상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더군. 최선을 다했지. 자, 이제 자네가 고통을 묵묵히 이겨 나가는 능력을 길러 보지 않겠나?”

주님의 축복으로 그는 내 권고를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지금은 선교부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입 동반자를 훌륭하게 훈련시켰고 얼마 되지 않아 구역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고통을 이겨 내고 선교 사업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낸 것입니다. 극기의 훌륭한 예였습니다.

등에 이상이 있는 선교사가 있었습니  
다. 주기적으로 그는 아팠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상태를 모르려니 하고 생각  
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에 열의가 대

단했기 때문에 선교 사업을 그만두도록  
해임당할까 봐 아픈 것을 비밀에 부쳤던  
것입니다. 체육 대회에서 두 무릎에 골  
절상을 입은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

---

“저는...성신에 이끌리어 형제님께로 나아가  
형제님에게 “형제님, 저의 눈을 보시며 제가  
열 명에게 침례를 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겠  
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

는 전에 있던 선교부장에게서 축복을 받  
고 나머지 임기를 견뎌 낼 수 있었습니  
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고통이 따랐  
습니다. 임기가 다 되어서 해임될 날이  
가까왔을 때 그는 내게 2년간 선교 사  
업을 더 하게 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

니다.

선교사 생활이란 쉬운 게 아닙니다.  
선교사 생활은 극기, 정신적 육체적 노  
력, 원숙함, 자제, 영성, 강하고 적극  
적인 정신적 자세가 요구됩니다. 소년  
이 아니라 성인 남자로서 장로가 되어



야 합니다. 선교사의 생활은 스파르타 식의 생활이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달함과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요구됩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 여러분, 선교 사업은 쉽기 때문에 인생의 훌륭한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보상은 부름의 화려함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후에 회원들이 보여 주는 개인적인 관심이나 찬사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을 선교 사업의 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예란 없습니다. 본인은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여자 친구나 부모가 선교사로 나가도록 설득했거나 선교 사업을 마치면 보상을 주겠다고 제의해서 선교사로 나간다면 그 선교사에게 큰 해를 미치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에게 보상을 제의하거나 약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일은 헛된 일입니다.

극기를 기꺼이 실행하는 선교사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그 보상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상도 포도원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품삯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극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나 결혼을 미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서 즐기는 대신에 경전을 연구하고 토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돈을 쓰는 대신에 선교 사업을 위해 돈을 저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방종은 마약이나 담배나 술과 같은 습관성 물질에 탐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외설적인 서적을 읽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일에 탐닉하게 됩니다. 그러한 서적들을 읽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게 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게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박, 절제없는 텔레비전 시청, 파식, 지나친 수면, 무절제한 공상, 호색, 욕설, 더럽고 외설스런 이야기, 단정하지 못한 복장, 거짓, 사기, 도박 따위는 한번 빠지게 되면 이러한 습성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습관에 빠져 있다면 그러한 습성을 버리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방종한 생활을 그만 두려면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반대로 극기의 생활은 품성과 건강과 자제심과 확신, 자존심 등을 강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교회의 젊은 세대들은 양 극단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양분시키고 있습니다. 두 극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안일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선교 사업을 하려 나가도록 결심하게 하는 것은 화려함이나 이국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봉사의 생활이며,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순수한 마음의 갈구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 즉 우리의 영혼 전체와 마음의 다짐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인 것입니다.

교회로 개종한 상냥한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침례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한 그룹의 청년들에게 김블 대관장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신전 결혼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간증 모임이 끝난 후 그녀는 이러

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교회로 개종했어요. 나의 아버지는 침례 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물론 교회로 들어오자 나의 아버지는 몹시 마음이 상하셨어요. ‘고 집 센’ 딸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내가 결혼할 때 결혼식을 주례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혼식을 주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결혼하는 것을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어머니도 무척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신전 결혼을 하라는 예언자의 권고에 따라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경과 요셉 스미스가 참되다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겨 내야 할 많은 책략을 생각할 때 그들은 선교사들에게 귀환하지 말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담배나 술이나 다른 악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육체적인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어느 한 순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얼마 전 토요일 이른 아침에 김슨 장로와 코벳 장로를 환송하기 위하여 공항에 갔었습니다. 잭슨 형제도 김슨 장로를 보기 위해 공항으로 왔습니다. 김슨 장로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잭슨 형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와 악수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어느 주일학교 반에서 ‘씩 나가 다니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쳤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김슨 장로는 조용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잭슨 형제는 “다시 들

아와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텐슨 장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마치고 6개월 전에 형제께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던 선교사 대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이 너무나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성신에 이끌리어 형제님께로 나아가 형제님에게 ‘형제님, 저의 눈을 보시며 제가 열 명에게 침례를 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를 정확하게 나타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은 제가 간절한 욕망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한 사람도 침례를 주지 못했으며 선교사 임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확신에 찬 음성으로 충실히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일한다면 ‘10명을 침례 줄 것입니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저는 형제님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님을 알고 있으며 제가 구하던 약속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일하였으며 2년간 충실한 노력을 기울인 선교사 임기도 끝났습니다. 주님은 저를 축복해 주셨으며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근 2년 동안 저는 한 사람도 침례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선교사 임기 중 마지막 토요일날 저의 동반자와 저는 물에 들어가서 15명이나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회개한 자녀를 위하여 하늘 왕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약속을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또 어느 신권 지도자라도 그러한 약

속을 할 수 있습니다. 모텐슨 장로는 헌신적인 봉사와 극기에 대한 시현을 보았으며, 목표를 성취하였습니다.

“지도자는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남 앞에 선 자는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서야 한다.”(작자 미상)

클래런스 샤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다운 지도력은 전심 전력을 다하여 충실하게 목적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자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단 순히 지도적인 직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다운 지도자가 되려면 고독을 견뎌 내야만 한다... 참다운 지도자가 되려면 권태를 이겨 내야만 한다. 지도자는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고 러베른 러셀 브릭스 학장님이 한 번은 과제를 하지 않은 한 학생에게 왜 과제를 하지 못하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학생의 대답을 들은 학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몸이 아픈 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미스군도 곧 알게 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하네.”

극기의 원리를 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실천하는 자는 그 원리가 재산을 축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나는 많은 경험을 하였지만, 그러나 극기를 실천할 때마다 언제나 강한 힘이 맥박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극기가 참된 원리임을 진정으로 느끼며 알고 있습니다. \*

